

정책동향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5.)

-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12.15.]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면서 그 토대 위에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추진

※ 무역투자진흥회의(2016.7.7.)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사례조사, 연구용역, 생산업체·경매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산자·동물보호단체,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주요 내용



Vol. 51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6. 12. 19.

■ 정책동향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등

■ 국내단신

우리나라 OECD 가입 20주년 의미

■ 연구지원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등

■ 현안분석

연령·영능 경력별 농가 구조 변화

2017년 사료용 쌀 공급물량 52만 톤으로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4.)

- [농식품부, 2017년 정부 쌀 52만 톤*(현미 기준) 사료용으로 공급, 12.14.] 정부 쌀 재고 조기 감축하고,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사료용 공급물량 확대
※ 공급물량은 2013년산 재고 쌀과 2014년산 시장격리 쌀 등 총 52만 톤(현미 기준)으로, 올해(10.1만 톤) 보다 5배 이상 증가된 수준

2017년 쌀 중장기 수급안정 보완대책 토론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6.)

- [농식품부, 2017년 쌀 중장기 수급안정 보완대책 토론회 개최*, 12.12.] 2017년 쌀 중장기 수급안정 보완대책 수립·발표(연말)에 앞서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 △적정생산에 위한 타작물재배 확대 방안,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 수출·원조 확대 방안 등 제시, 직불제 개편안 등은 별도 토론회 통해 의견 수렴할 계획

‘2016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5.)

- [농식품부, 「2016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시상*, 12.15.] 대형유통업체, 농협, 지자체 등이 추천한 30개 쌀 브랜드에 대해 품종·품위·식미 평가를 거쳐 10점 선정
※ 쌀의 품질 관리와 상품 차별화를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사업 추진
- (평가 결과) 대슬맑은담양쌀(대상), 방아찡는날 골드(최우수상), 각 도별 우수상 8점 (임금님표 이천쌀, 원주쌀 토토미, 청원생명쌀, 만세보령쌀 삼광米 GOLD, 탐마루 골드라이스, 함평 나비쌀, 안동양반쌀, 밥맛이 거창합니다)

2016년 실속형 축산물 ‘BEST 10’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5.)

- [농식품부, 2016년 실속형 축산물 ‘BEST 10’ 선정·시상*, 12.15.] 1인 가구 증가, 가품비(가격대비 품질) 중시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축산물 소비 활성화 위해 ‘BEST 10’ 선정
- (한우부문, 6개 브랜드) 대상 ‘팔공강한우’ (대구축협), 최우수상 ‘의성마늘소’ (의성축협), 우수상 ‘안성마춤한우’ (안성마춤농협조공법인)와 ‘참품한우’ (㈜참품한우), 장려상 ‘참예우’ (NH참예우조공법인)와 ‘강원한우’ (강원한우조공법인)
- (한돈부문, 4개 브랜드) 대상 ‘도드람한돈’ (도드람양돈농협), 최우수상 ‘인삼포크진생원’ (도원진생원포크양돈조합법인), 우수상 ‘선진포크’ (㈜선진), 장려상 ‘포크 밸리’ (부경양돈농협)

도매시장 유통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6.)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매시장 유통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12.15.] 고품질 농수산물 경락정보 개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매시장 관리업무 혁신과 정보 개방으로 793억 원 규모 편익 기대
※ 3개 지자체 공영도매시장관리사업소대전 노은오정, 부산 엄궁 및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업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6.12.12.)

- [한국-이스라엘 FTA 제2차 협상 개최, 12.11~15, 예루살렘] 1차 협상*(2016.6월, 서울) 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산,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 등 분야의 협상을 개시하며, 상품 양허협상 개시 등 모든 분야 협상 진행
※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및 무역원활화, 원산지, 무역구제, 협력 등 주요 분야 협상 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년 신규과제 50개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5.)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업 현장의 질병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R&D 신규과제 50개 선정, 209억 원 예산 투입 계획] △2017년까지 국산 구제역백신 원천기술 확보, △조류인플루엔자(AI) 표준진단기술확립 연구 등을 통해 AI 방역 혼선 최소화, △생산성 저하 질병에 대한 제어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 도모 등 성과 기대

Ⅶ대 연구분야별 신규과제수

과제수	국가재난형 대응연구	동물질병 방제대응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연구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신기술)	동물약품 동물복지	식물검역 대응연구
50	11	13	8	4	5	6	3

고병원성 AI 진행상황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6.12.12./13.)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2./13./15./16.) · 행정자치부(2016.12.12.)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AI 관계장관회의 개최, 12.12.] AI 방역대책 추진 상황 및 대응계획 등 점검, AI 대책 방향 관련 7대 원칙* 제시
※ ① 과감한 광역의 방역 조치 실시, ② 중앙·지방·업계·농가·전문가 등의 신속한 정보 공유, ③ 즉각적·사전적·꼼꼼한 대처, ④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 ⑤ 모든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 ⑥ 책임을 다했으나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한 충분하고 납득 가능한 지원, ⑦ 방역 관계자들의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 정책동향

- (주요 내용) △AI 방역대책본부 확대 개편, △전국 일제소독 후, “전국단위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12.13. 00시~12.14. 24:00)” 추가발령,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 확대,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 △방역대책 보완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 AI 일일점검회의 개최, 12.13.] AI 점검회의 매일 개최,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 AI 점검회의 매일 개최 등 강력한 추가 대응 지시*
※ 농식품부, AI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 매일 개최(12.15.)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한 사항 철저히 이행(AI 긴급행동지침에 부합되는 방역조치 등)
-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 주제, AI 대처 및 수습대책 강화 위한 점검회의 개최, 12.12.] △농식품부...전 부서 및 관계부처 합동 「AI방역대책본부」 확대 운영, △지자체...발생 지자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총력대응, △국민안전처...「AI상황 관리대책반」을 「AI방역대책지원단」으로 확대
- [행정자치부, AI 방역활동 지자체 전폭 지원, 12.14.] 지자체 평가체제 보완, 살처분비 지방비 확보 독려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공조체계 강화, 방역 등 고위험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위험근무 수당신설 검토
- [정부, 관계부처 협의로 AI 총력 대응을 위한 범정부 통합 체계 강화, 12.16.] △위기 경보 단계를 12.16일부터 ‘경계’ → ‘심각’으로 격상*, △‘AI 방역대책본부’ →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
※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개최(12.15.)하여 ‘경계’ → ‘심각’으로 위기단계 상향 조정 하되, 본부구성방안, 세부일정 등은 정부 내 협의 거쳐 결정토록 심의, 의결
- [고병원성 AI(H5N6형) 최종 확진] △12.12.확진...12.10일 토종닭(충북 청주) 종오리(전남 나주) 의심축, △12.13.확진...12.8일 종오리(전북 고창), 육용오리(전북 부안) 의심축, △12.15.확진...12.12일 육용오리(충남 천안) 의심축

경제·사회일반

주요 국정 논의 동향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6.12.10.) · 기획재정부(2016.12.10.)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12.10.] 주요 국정현안 점검·논의, △경제분야...경제활성화, 민생 안정, 미래대비(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중점을 둔 2017년 경제정책방향 조속히 수립 발표 등, △사회분야...AI 확산방지 등
※ (참석자) 경제·사회부총리, 외교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정책동향

-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2차관 주제,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 회의」 개최*, 12.10.]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 점검, 대응방안 논의
※ (참석자)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원장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등·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자료 : 행정자치부(2016.12.13.)

- [산업통상자원부,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 인가*, 12.13.] 1) 주택용 누진제 완화(전기소비 20% 절감 시 10% 요금 추가할인), 2)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취약계층 할인규모 2배 확대), 3)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초·중·고교 유치원 전기요금 20% 할인), 4)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친환경 투자에 2천억 원 규모 지원)
※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2016.8.18.~11.23.), 3차례 산업위 보고(11.24., 12.6., 12.8), 공청회(11.28)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 다자녀·대가족 가구 요금할인을 30%, 출산가구 요금 할인 추가 신설, 사회복지시설 현행 20% → 30 확대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사로 간편화

자료 : 행정자치부(2016.12.15.)

- [행정자치부, 주민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 추진, 12.15.] △정비 대상...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등 현황조사 및 기관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
- (주요 내용) 현재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은 등·초본 제출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
※ 등·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한사람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이 아닌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
- (향후 계획) 정비 대상 법령의 소관기관은 올해 안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계획 수립, 2017년부터는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와 법령 정비의 추진 실적 및 추진 현황 공유

국내단신 우리나라 OECD 가입 20주년 의미

□ OECD 가입 20주년 의미: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 마련

- [대상국가] 한국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16.12.12.
- [OECD 가입*] 2016.12.12.일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한지 **20주년**
※ 정부의 가입신청서 제출(1995.3.29.), 가입초청협정 서명(1996.10.25.), 비준서 기탁(1996.12.12.) 등을 거쳐 OECD 가입 완료
- [OECD 가입 이후 성과: 중견회원국으로 성장] OECD 가입한 이래로 20년간 경제·사회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 가입당시에 비해 **GDP와 1인당 GDP는 2.5배 내외, 외환보유액은 10배 이상 증가**, 고등교육 이수율, 기대수명 등 **교육·보건분야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

Ⅱ 20년간 한국의 주요 경제·사회지표

항목	1996년 ²⁾	2015년 ³⁾	기간 중 변화
GDP	6,568억 달러 (10번째/34개국)	1조 7,468억 달러 (8번째/34개국)	+1조 900억 달러
1인당 GDP	1만 4,428달러 (25번째/34개국)	3만 4,549달러 (22번째/34개국)	+2만 121억 달러
외환보유액	332억 달러	3,680억 달러	+3,348억 달러
GDP 대비 R&D 투자	2.3% (6번째/26개국)	4.3% (1번째/30개국)	+2.0%p
고등교육 이수율 ⁴⁾	37% (5번째/29개국)	69% (1번째/32개국)	+32%p
GDP 대비 공공 부문 사회지출 비중	3.4%	10.4%	+7.0%p
기대수명	73.9세 (28번째/24개국)	82.2세 (11번째/34개국)	+8.3세
GNI 대비 ODA	0.03% (25번째/25개국)	0.14% (26번째/33개국)	+0.11%

주: 1) ()안은 OECD 대상국가 가운데 순위, 2)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0년 기준, 3) R&D 투자와 기대수명은 2014년 기준, 4)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자료: 「OECD에서 대한민국 행보찾기」

- [향후 도전과제: 포용·삶의 질 중심의 발전모델로 전환] 그간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지표는 OECD 타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 기존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Beyond GDP), ‘포용·삶의 질’ 중심의 다차원적 발전모델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 2016년 OECD 삶의 질(Better Life Index) 지표에서 38개국 중 28위,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36위 기록

연구지원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자료 : 통계청(2016.12.15.)

- [통계청,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배포, 12.16.] 국내외 북한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2015년 기준 인구, 경제, 대외거래, 농수산업 등 주요 부문별로 남북한 통계자료를 병행수록한 간행물
※ 북한의 경제·사회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북한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발간

Ⅱ 남북한 주요통계지표(2015년 기준)

부 문	지 표	북/남 (남/북)	남 한	북 한
인 구	남북한 인구 ¹⁾	1/2 (2.06)	5,102만 명	2,478만 명
경제총량 ²⁾	명목GNI	1/45 (45.37)	1,565조 8,160억 원p)	34조 5,120억 원
	1인당GNI	1/22 (22.26)	3,094만 원p)	139만 원
대외거래 ³⁾	무역총액	1/104 (154.12)	9,632.6억 달러	62.5억 달러
	수출	1/195 (195.10)	5,267.6억 달러	27억 달러
	수입	1/123 (122.61)	4,365억 달러	35.6억 달러
광공업	조강	1/65 (64.57)	6,967만 톤	107만 9천 톤
	시멘트	1/8 (7.77)	5,204만 4천 톤	669만 7천 톤
에너지	발전설비용량	1/13 (13.15)	9,764만 9천kW	742만 7천kW
농수산업	쌀(정곡기준)	1/2 (2.15)	432만 7천 톤	201만 6천 톤
	수산물	1/4 (3.59)	334만 2천 톤	93만 1천 톤
사회간접자본	도로총연장	1/4 (4.11)	10만 7,527km	2만 6,183km
	선박보유톤수 ⁴⁾	1/13 (13.39)	1,339만 톤	100만 톤

주 : 1) 남한은 2016.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 북한은 2010.11월에 작성한 북한인구추계(1993년 및 2008년 센서스를 기초로 추계) 자료임.

2)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에 의해 추정됨에 따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p)는 잠정치를 의미함.

3) 무역총액 = 수출액+수입액. 무역총액, 수출액, 수입액에는 남북교역액 불포함 / 4) 남한은 등륜선 자료

2016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5.)

- [농식품부, 2016 외식기업 해외진출 조사결과 발표, 12.15.] 2016.9.5.~10.21. 동안 설문 및 인터뷰로 조사한 결과, 188개 외식업체 50개 국가에서 5,476개 매장 운영*, 국산 식재료 수출규모 340억 원 추정** (전년 대비 3.9% ↑)
 - ※ 2015년(138개 업체/4,656개 매장) 대비 17.6%, 2010년(99개) 대비 452.6% 성장
 - ※※ 식재료 수출금액 공개 41개 기업(231억 2천만 원) + 비공개 25개 기업 추정 (108억 8천만 원)
- (주요 특징) ① 한식업종의 해외진출 증가, ②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 매장 증가, ③ 해외 진출방식 다양화

연도별 해외진출 추이(개, %)

연 도	진출 기업 수			진출 매장 수		
	업체수	전년 대비 증가율	2005년 대비 증가율	매장수	전년 대비 증가율	2005년 대비 증가율
2005	44	-	-	221	-	-
2008	51	16%	16%	797	261%	261%
2010	56	10%	27%	991	24%	348%
2012	77	38%	75%	1,485	50%	572%
2013	95	23%	116%	2,717	83%	1,129%
2014	120	26%	173%	3,726	37%	1,586%
2015	138	15%	214%	4,656	25%	2,007%
2016	188	36%	327%	5,476	18%	2,378%

- (한식업종 해외진출 증가*) 전체 해외진출 매장 중 한식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13.4%로 비한식업종(86.6%)에 비해 낮으나, 전년 대비 매장 수 증가율은 한식업종 매장이 52.5%로 비한식 보다 더 높아
 - ※ 한식(업체수/매장수): (2013) 45/257 → (2014) 46/348 → (2015) 53/480 → (2016) 79/732
 - ※ 비한식(업체수/매장수): (2013) 54/2460 → (2014) 78/3378 → (2015) 88/4176 → (2016) 118/4744
- (아시아권 진출 지속 증가) 아시아권 매장*은 4,138개로 전체의 75.6%를 차지하며, 향후 해외진출 희망국가도 베트남·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많아
 - ※ 국가별: 중국(2,786개 매장) > 베트남(306) > 필리핀(253) > 인도네시아(182) > 싱가포르(72) > 대만(71) > 말레이시아(71) > 일본(62) 순
- (진출방식 다양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이 50.5%로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며, 2015년 대비 국제가맹점 진출방식 5.4%p(15.0% → 20.4), 기술전수 2.4%p(10.7% → 13.1) 등이 증가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 현황(매장수 기준/전체 5,476개)

연 도	미국	아시아권							기타	계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기타*		
2013	951	992	29	112	242	72	68	117	134	2,717
2014	959	1,505	115	192	307	72	81	244	251	3,726
2015	1,444	1,814	142	195	292	140	72	260	297	4,656
2016	1,188	2,786	62	253	306	182	72	477	150	5,476

※ 아시아권 기타국가: 대만(71), 말레이시아(71), 홍콩(59), 몽골(38), 미얀마(27) 등

주요 국가별 진출업종 및 매장현황(2016.10월 기준)

국가	업종구분	대표 진출 브랜드
중국 (2,786)	한식(육류구이)	서래갈매기(48), 본가(28), 백정(33), 화통삼(21), 신마포갈매기(31)
	한식(찌개류)	놀부부대찌개&첼판구이(14), 참이맛감자탕(23)
	한식(기타)	먹쉬돈나(34), 설빙(33), 본죽(17)
	비한식(커피디저트)	카페베네(400), 탐앤탐스커피(46), 주커피(7), 투썸플레이스(21), 휴롬주스카페(25)
	비한식(치킨·피자)	치킨커플(380), 더프라이팬(300), 패리카나(70), 미스터피자(120), 비비큐(50), 피자투어(102)
	비한식(제과)	파리바게트(174), 뚜레주르(100)
미국 (1,188)	한식	백정(11), 본가(11), 본죽(5)
	비한식(커피디저트)	레드망고(154), 카페베네(50), 탐앤탐스(7), 올버벗차(7)
	비한식(치킨·피자)	본촌치킨(50), 처갓집양념치킨(13), 비비큐(10), 토레오레(8)
	비한식(제과)	델리만주(700), 파리바게트(48), 뚜레주르(35), 코코호도(12)
베트남 (306)	비한식(패스트푸드)	롯데리아(201), 비비큐(17)
	비한식(제과)	뚜레주르(30), 파리바게트(10)
필리핀 (253)	한식	불고기브라더스(5), 꿀배달강정(4), 세프의국수전(3)
	비한식(커피디저트)	레드망고(9), 카페베네(5), 카페띠아모(4)
	비한식(치킨·피자)	본촌치킨(108), 비비큐(11), 교촌치킨(6), 미스터피자(4)
	비한식(제과)	뚜레주르(19)
인도네시아 (182)	한식	본가(11), 꿀달(11), 서래갈매기(5), 유가네달갈비(4)
	비한식(커피디저트)	카페베네(5)
	비한식(패스트푸드)	롯데리아(32), 본촌치킨(19), 교촌치킨(8), 비비큐(3)
	비한식(제과)	델리만주(50), 뚜레주르(17)
싱가포르 (72)	한식	본가(12), 백스비빔밥(7), 콩돈(4)
	비한식	네네치킨(7), 파리바게트(6), 요거베리(3), 스위트몬스터(3)

FAO 식량가격지수 (2010년~2016년 11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2.)

연도	식량가격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2010	188.0	158.3	206.6	179.2	197.4	302.0
2011	229.9	183.3	229.5	240.9	254.5	368.9
2012	213.3	182.0	193.6	236.1	223.9	305.7
2013	209.8	184.1	242.7	219.3	193.0	251.0
2014	1월	203.2	182.2	267.7	191.4	221.7
	2월	208.6	181.8	275.4	198.6	235.4
	3월	213.8	185.5	268.5	208.9	254.0
	4월	211.5	190.4	251.5	209.2	249.9
	5월	210.4	194.6	238.9	207.0	259.3
	6월	208.9	202.8	236.5	196.1	258.0
	7월	204.3	205.9	226.1	185.2	259.1
	8월	198.3	212.0	200.8	182.5	244.3
	9월	192.7	211.0	187.8	178.2	228.1
	10월	192.7	210.2	184.3	178.3	237.6
	11월	191.3	206.4	178.1	183.2	229.7
	12월	185.8	196.4	174.0	183.9	217.5
	(평균)	201.8	198.3	224.1	191.9	241.2
2015	1월	178.9	183.5	173.8	177.4	217.7
	2월	175.8	176.9	181.8	171.7	207.1
	3월	171.5	170.4	184.9	169.8	187.9
	4월	168.4	170.8	172.4	167.2	185.5
	5월	167.2	172.6	167.5	160.8	189.3
	6월	164.9	169.5	160.5	163.2	176.8
	7월	164.2	172.7	149.1	166.5	181.2
	8월	155.0	170.8	135.5	155.1	163.2
	9월	155.3	167.6	142.3	154.8	168.4
	10월	158.2	158.0	155.6	157.3	197.4
	11월	155.2	154.6	151.1	153.6	206.5
	12월	153.4	150.0	149.5	151.6	207.8
	(평균)	164.0	168.1	160.3	162.4	190.7
2016	1월	149.3	145.2	145.1	149.1	199.4
	2월	149.7	146.7	142.0	148.2	187.1
	3월	150.8	145.8	130.3	147.6	219.1
	4월	152.8	149.6	127.4	149.8	215.3
	5월	156.7	154.4	128.0	152.5	240.4
	6월	163.9	159.9	137.9	156.9	276.0
	7월	162.5	161.7	142.3	148.1	278.7
	8월	166.6	164.9	154.6	143.6	285.6
	9월	170.9	163.7	176.0	140.9	304.8
	10월	172.0	161.8	182.8	142.3	315.3
	11월	171.3	161.5	186.4	141.4	287.1
	(평균)	160.6	155.9	150.2	147.3	255.4

한국의 사회동향 2016

자료 : 통계청(2016.12.12.)

- **[학력수준 상승과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학령인구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전반적인 학력수준 상승으로 노동력 수급 부족화 현상** 야기
 ※ 전체학령인구는 1980년(1,440만 명) 대비 2015년(887만 명)에 38.4% ↓
 ※※ 주요 국가들 중 한국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45.0%)은 높으나 전체 근로자 중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 비율(21.6%)은 매우 낮음.
- **[건강]** 현재 감염병 발생률, 1960년대 수준에 도달, 지난 10년 간(2004-2014) 간호인력 매년 증가*(남자 간호사도 증가)
 ※ 간호사 면허자수(59.9%)와 활동 간호사수(64.3%) 증가
- **[교육]**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가정형편에 따라 인권존중 받는 느낌 다름,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더 많이 경험(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초·중·고 학생의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및 체벌 경험률은 학년이 높을수록 많아
- **[문화]**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우려 증가
- **[노동]** 한국의 노동시장은 사업체규모에 따라 임금과 복지, 고용안정성,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격차 커*
 ※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의 39.3~76.4% 수준
- **[소득과 소비 -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부채보유가구 비율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채상환부담 증가율은 고령자층에서 높아
- **[사회통합 -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가구소득수준이 하위 계층일수록 세대 내·세대 간 상향이동 가능성 낮게 평가
-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6.6%)이 여성(13.7%)보다 높아
- **[가사분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51.5%) > 남성(41.9%), '실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6.4%) > 여성(16.0%)
- **[1인 청년가구(가구주 연령이 25-39세)]** △소득...경상소득 중 근로소득비중 남성(75.0%) > 여성(71.3%), △사업소득비중...여성(21.9%) > 남성(18.9%), △소비...여성(64.7%) > 남성(53.5%)
- **[취업자]** △산업분류별...남성 취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산업은 제조업(21.3%)이며, 여성 취업자는 도소매업(15.6%)에 가장 많이 종사
 ※ 취업자의 산업대분류별 구성비율(2015) 중 농림어업 비율: (남자) 5.4% (여자) 5.9%

『2016 일·가정양립 지표』 주요 결과

자료 : 통계청(2016.12.13.)

- **[출생아수]** 2015년 총 출생아수는 **43만 8천 명**(전년 대비 2,985명↑)
- **[희망 자녀수]** 2015년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2.3명**
- **[맞벌이 가구*]** 2015년 10월 기준 취학 이전인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은 38.1%로 가장 낮고, 초등·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절반을 넘어 7~12세 51.6%, 13~17세 57.6%
 -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42.2%)가 1~2명인 경우(47.7%)보다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낮음.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2015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 73.8%, 여자 51.8%** 이고, **고용률***은 남녀 각각 **71.1%, 49.9%**,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남녀 간 격차는 30대가 가장 커**
 -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자 고용률(43.9%)은 전년(42.8%) 대비 증가
- **[근로시간*]** 2015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6시간**, 남자 46.0시간, 여자 40.4시간
 - ※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는 남녀 모두 근로시간 감소
- **[영유아 기관 이용시간*]** 2015년 영유아(0~5세)는 **하루 평균 7시간 16분**
 - ※ 2012년 영유아 기관 이용시간: 7시간 23분
- **[보육시설*]** 2015년 어린이집 수 42,517개소(전년 대비 1,225개소↓), 유치원 8,930개소(전년 대비 104개소↑)
 - ※ 2015년 사업장의 50.5%가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 **[보육제정]** 2015년 GDP대비 **보육제정 비중 0.89%**(전년 0.88% 대비 증가)
- **[육아휴직자]** 2015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 7,372명**(전년 대비 13.7%↑)
 - ※ 육아휴직 사용자 중 76.4%는 복직 후 1년 이상 계속 같은 직장을 다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1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061명** (전년 대비 2배↑)
 - ※ 201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체의 애로사항은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 > 「대체근로자 확보 어려움」 순
-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율]** 2016년 기업의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비율은 **출산휴가(80.2%) > 배우자 출산휴가(60.8%) > 육아휴직제도(58.3%)** 순
- **[유연근무제도 도입율*]** 2016년 사업체 10곳 중 2곳은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
 - ※ 도입비율: 시차출퇴근제(12.5%), 근로시간단축제도(11.6%), 탄력적근로시간제(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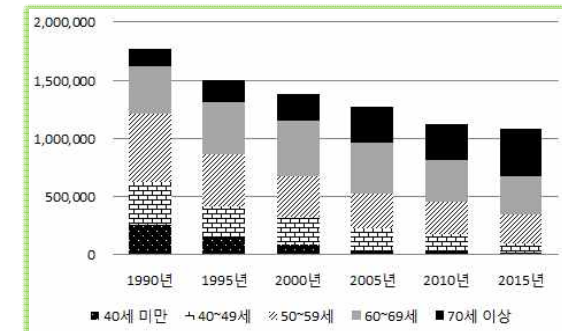
현안분석 연령·영농 경력별 농가 구조 변화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등을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분석·작성하였습니다.

□ 경영주 연령 구간별 농가 호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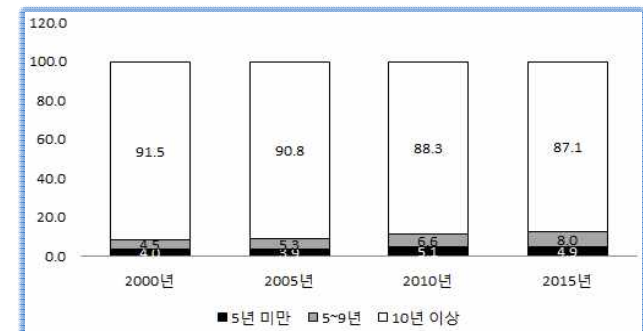
- **[농가 호수]** 농가 호수는 **1990년 176만 7,033호**에서 **2015년 108만 8,518호**로 **38.4% 감소**하였음.
- (경영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농가 호수·비중) **1990년 25만 7,896호**에서 **2015년 1만 4,366호(1.3%)**로 **감소**하였음.

■ 농가 호수 및 경영주 연령 구간별 구성비 변화, 1990~2015년



□ 신규 진입 농가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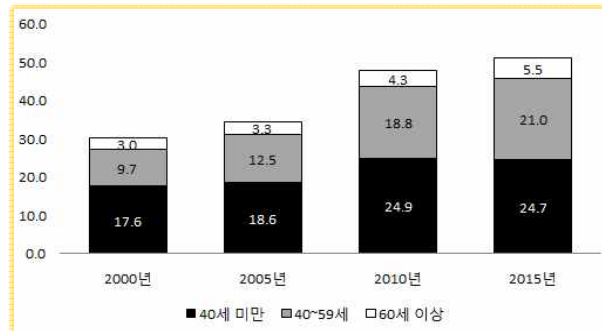
■ 경영주 영농 경력별 농가 호수 비중, 2000~2015년



현안분석

- [2000~2015년 간 경영주 영농 경력이 10년 미만인 농가 비중] 8.5%에서 12.9%로 증가하였음.
- 영농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영주를 신규 진입 농가로 가정하면, 그 비중은 3.9~5.1%임.

■ 경영주 연령대별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가 비중, 2000~2015년 ■



- 2000~2015년 동안 경영주 연령대와 영농 경력을 함께 고려하면 40대 미만 경영주 중 신규 진입 농가 비중이 증가하였음.
- 60대 미만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전 기간 40대 미만 경영주가 40~50대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

시사점

- 신규 진입 농가는 후계영농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 중 하나임.
-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고령화와 후계영농인력 확보는 불가분의 관계임.
- 신규 진입 농가가 겪는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정책과 연결해야 함.
- 몇 년간 현안이 되고 있는 귀농·귀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음.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